

북토크 “메모 좀 하는 사람들” *대상 도서: <아무튼 메모>, 정혜윤

2020년 5월 14일(목) 18:30~ @Zoom에서 진행 (참석자: 8명)

<참가자 사전 문자 발송>

- 우리 북토크의 커뮤니케이션 원칙(수줍음 존중, 열린 마음 권장 / 우리 모두 기여자 / 판단하지 않는 상호 리스펙트 / 조금 과한 리액션) 관련 & 자기 자신의 메모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할 준비를 해 달라는 문자 발송
- 모임 하루 전 리마인더 문자(e.g. “내일 모임은 00시에 시작됩니다. 랜선으로 진행되는 모임입니다. 5-10분 전에 착석하시어 카메라와 마이크를 테스트해 주세요. 먹을 것과 마실 것, 메모도구 등을 준비하셔도 좋겠지요?”)

1. Opening 총 24분

a. 랜선 북토크 개설의 이유 3분

: 분기에 한 번 개최하는 걸 목표로 2018년 가을 즈음 시작했던 인디스쿨 문화팀 북토크. 지금까지 <과이어트>, <손의 모형>, <노 임팩트 맨>을 주제로 북토크를 진행해 왔음. 2020년에는 보다 자주 열어보고 싶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교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됨. 실제 만남에 비해 아쉬운 면이 많겠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최함. 시국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함.

b. 랜선 북토크 관련 양해의 말씀 2분

: 처음 해보는 시도라서 진행이 조금 어색할 가능성이 있음, 대화 중간에 음성이 엉키거나 연결 문제로 시간이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양해와 더불어 인디스쿨 문화팀과 함께 ‘랜선 행사를 만들어가는 한 팀이라는 마음으로’ 참여해주시기를 요청함. 랜선이기 때문에 공감과 지지와 동의를 표하는 비언어적 소통이 잘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이에 따라, 적극적인 끄덕임을 요청드림.

>> 랜선 북토크 관련 자세한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는 여기에서:

<https://www.notion.so/7dcc7788ac5f4cf4b4a763563db2018f>

c. <아무튼, 메모> 책 간단 소개 - 담당자 지정(호스트 혼자 오프닝을 다 담당하지 않고, 역할을 분산하는 게 좋음) 7분

: 책 <아무튼, 메모> 7분 요약

d. 간단한 자기소개 - “당신은 어떤 메모주의자인가요?”, “오늘 무엇을 기대하나요?” (호스트가 먼저 이야기 하면서 예시를 보임) 12분

: 학교 이름이나 나이는 소개하지 않아도 됨. 단, 랜선으로 하는 만큼 어떤 지역들에서 참석하셨는지는 궁금하므로 소속 지역과 함께 자신이 ‘어떤 메모주의자인지’ 소개 부탁.

>> e.g. “경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저 자신의 역사를 기억해주고

싶어서 메모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메모 스킬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메모하는 습관은 가지고 있어요. 주로 휴대폰 메모장에 메모하고요. 공개해도 괜찮고, 정리가 잘 된 글은 sns에 옮겨서 공개하기도 해요. 오늘 다른 선생님들의 메모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감을 받고 싶어서 참석했어요.”

2. Book Review 40~50분

a. 가장 인상깊었던 1~2구절과 그 까닭

: 돌아가면서 자신의 '최애 문장/단락/페이지'를 소개하고, 그 이유를 공유함. 시작을 호스트가 하거나 지정한 후에는, 다음 사람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다음 사람 '지목'이 아닌 '초대'임을 언급하면서, 지목당하여 말을 번듯하게 해야한다는 압박 없이 수다 떠는 타이밍에 초대받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여 분위기를 편안하게 유도할 것)

>> 호스트의 답변 준비

: 차마시며 생각 정리하는 시간을 가장 나다운 시간으로 인식하는 타이밍이기에 “보이지 않는 그가 보이는 그보다 더 그답다”라는 말이 특히 와닿았음. 이의 맥락에서, ‘성찰하는 메모’에 관한 내용을 인상 깊게 봤음. 27p “낮에 좋았던 이야기는 밤의 중요한 질문이 된다”, 45p “메모하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하는 셈”, “멈추는 시간”이라는 표현도 와 닿았음. 많은 선생님들, 사람들이 멈추어 질문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음. 메모는 훌륭한 동기이고 수단일 땀. 바쁘고 힘들어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오히려 써야 함. 은유 작가, “글쓰기는 삶에 품위를 더하는 일”이라는 말 소개하기.

3. Sharing1: 나의 메모 생활, 그리고 메모 생활의 유익 40~50분

a. 자기소개 할 때 이야기 했던 ‘나는 어떤 메모주의자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자신의 차례에, 아까 들었던 다른 참가자들의 자기소개를 토대로 질문을 해도 됨. (e.g. “아까 에버노트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곳에 주로 무얼 쓰시나요?”) 평소에 어떤 식으로 메모하고 있는지, 편하게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메모 앱, 노트, 블로그 등을 공유해주어도 좋음. 메모를 하면서 느꼈던 유익한 점도 나누기.

>> 호스트의 답변 준비

1) 어렸을 때는 일기를 한글문서로 작성해 제본하여 소장한 일이 있다. 순간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2) 데쓰노트 작성하기: 미운 사람이 있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끄끙 앓는다가 화와 미움을 발산하지 않고 글쓰기로 분출하는 습관. 단순히 분출하고 마는 게 아니라, 왜 화가 났는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그럴 수 있음을 인지하게 도와주는 작업이 바로 메모이다. 이 작업을 하다보면 내 안의 자기중심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대접받아 마땅한 인간이라고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랄지를 발견하게 되고, 사소한 일이었음을 인지하게 되기도 하는 등의 유익이 있음. 감정적으로 살지 않게 됨. / 안좋은 일만이

아니라 너무 신나고 설레는 바람에 도를 지나칠 수 있는 일도 글쓰기로 잘 정돈됨.

3) 기타 후보군: 말 아카이브... 등

4. **Sharing2:** 글쓰기를 권하는 나의 교실 **20~30분**

- a.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글쓰기를 권하고 있는지, 교사 저마다의 꿀팁이나 경험담을 너무 지도안 짜는 시간 같지 않은 선에서 나누기. 가볍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자발적으로 나뉘질 수 있도록 유도.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유발하는 노하우 등 나눠보기

5. **Closing:** 오늘 어땠는지 한 문장씩 나누기 **10분**